

윌리엄 오컴, 『논리학 대전』 제1부 - 명사(名辭)에 대하여,  
박우석, 이재경 역, 서울: 나남, 2017

『논리학대전』 제1부는 어떤 책인가?

-중세 논리학과 의미론의 역사를 돌아본다-

유대철

(대구가톨릭대학교)

## 0. 시작하기에 앞서

드디어 오컴의 『논리학대전』 제1부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sup>1)</sup> 이 번역의 성과는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기쁜 일이다. 누가 무엇이랴 해도 충분히 축하할 한국 중세 철학의 성과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 등이 활동한 13세기 철학 이후 후기 중세 철학을 이해함에 있어 오컴 철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이미 많은 철학사기들의 연구 결실에서 이미 증명된 바다. 그의 그 철학적 성과 가운데 특히 주요한 저서가 바로 『논리학대전』이다. 이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바로 이 책이 오컴 철학에 대한 오컴 자신이 직접 쓴 자기 철학의 입문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세 철학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알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그저 그 시대 통용되던 신학 일반에 대한 입문서가 아니다.

---

1) 윌리엄 오컴, 『논리학 대전』 제1부 - 명사(名辭)에 대하여, 박우석, 이재경 역, 서울: 나남, 2017.

흔히 이야기하는 개론서와 다르다. 『신학대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접근하는 훌륭한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오캄의 『논리학대전』 역시 당시 대학에서 통용되던 혹은 유행하던 논리학 일반에 대한 개론서가 아니다. 이런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논리학 입문서’가 아닌 ‘오캄 논리학 입문서’ 혹은 ‘오캄 철학 입문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오캄이라면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바로 ‘유명론’이다. 『논리학대전』은 바로 그 유명론이 어떻게 그의 지적 노력에 의하여 그의 유명론으로 성립되고 적용되었는지 살피는 좋은 자리다. 즉 오캄이라면 떠오르는 바로 그 단어, 유명론이 오캄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잘 확인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다. 특히 이 책을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읽어 간다면 이 책이 당시 자신이 반대하고 자신을 반대하던 이들을 향한 외침임을 알게 된다. 즉 논쟁의 자리란 말이다. 당시 그와 논쟁하던 실재론자 버얼리(Walter Burleigh, c. 1275-1344/5)의 범주(categoriae) 및 술어 이해를 논박하는 오캄의 입장과, 버얼리와 구분되는 포르피리우스 『이사고게』에 대한 오캄 자신의 이해를 비롯하여, 당시 시대적 화두와 같던 ‘지칭론’(suppositio-theory)에서 다른 이와 구분되는 오캄 고유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바로 『논리학대전』 제1부다.<sup>2)</sup> 사실 그의 유명론만큼이나

2) 유대철, 「스콜라 지칭론의 복원 작업」 『중세철학』 16(2010), 175-216과 F. Brown, “Medieval supposition theory in its theological context”, *Medieval philosophy and theology* 3(1993), pp.121-157 이외에도 지칭 이론의 등장과 관련하여 비록 몇 가지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글은 좋은 안내서가 되어 주었다. S. Ebbesen, “Early supposition theory (12th-13th Century)”, *Histoire épistémologie langage* 3/1(1981), pp.35-48. 또한 지칭 이론을 다룸에 있어 무조건 일독해야 할 것으로 필자에게 여겨지는 L.M. De Rijk, “The Development of Suppositio naturalis in Mediaeval Logic, II. 14th-Century Natural Supposition as Atemporal (Omni-temporal) Supposition”, *Vivarium* 11(1973), pp.43-79; L.M. De Rijk, “The Development of Suppositio naturalis in Mediaeval Logic, I. Natural Supposition as Non-contextual Supposition”, *Vivarium* 11(1971), pp.71-107; L.M. De Rijk, *Logica Modernorum*, Volume II Part 1 (Assen: Koninklijke Van Gorcum & Company N.V., 1967).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이외 지칭과 중세 논리학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하였다. J.T. Kearns, “Propositional Logic of Supposition and Assertion”, *Notre Dame Journal of Formal Logic* 38(1997), pp.325-349; A.J. Freddoso,

유명한 것은 그의 정치철학적 입장이다. 그런데 그의 정치철학적 논의는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의 유명론과 나누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의 유명론적 입장이 그의 정치철학에 녹아들어 있다는 말이다. 그의 정치철학적 입장의 존재론적 근본이 그의 유명론에 있다는 말이다. 그 뿐 아니라, 그의 자연철학에도 그의 유명론적 입장은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논리학대전』 제1부의 번역은 단순한 한편의 책이 라틴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치철학 및 자연철학을 포함한 오캄 철학 전반의 논의가 한국어로 고민되고 연구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책이 당시 오캄과 다른 입장을 가진 실재론자 심지어 유명론자의 철학적 입장과의 대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오캄의 철학을 넘어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 유럽의 뜨거운 철학적 화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한국어로 된 진입로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지만 『논리학대전』 제1부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그 역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

“O-Propositions and Ockham’s Theory of Supposition”, *Notre Dame Journal of Formal Logic* 20(1979), pp.741-750; C.D. Novaes, “Theory of Supposition vs. Theory of Fallacies in Ockham”, *Vivarium* 45(2007), pp.343-357; D.P. Henry, *Medieval Logic and Metaphysics*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1972); C. Panaccio, *Ockham on Concepts* (Hampshire: Ashgate, 2004); C. Panaccio & E. Perini-Santos, “Guillaume d’Ockham et suppositio materialis”, *Vivarium* 42(2004), pp.202-224; C. Panaccio, *Les Mots, les Concepts et les Choses* (Paris: Vrin, 1992) ; P. Spade, “Ockham’s Rule of Supposition : Two Conflicts in his Theory”, *Vivarium* 12(1974), pp.63-73; M. Adams, “What Does Ockham Mean by ‘Supposition’?”, *Notre Dame Journal of Formal Logic* 17(1976), pp.375-391; P. Boehner, *Medieval Logic* (Westport: Hyperion Press, 1988); E. Moody, *Studies in Medieval Philosophy, Science, and Logic*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E. Moody, *Truth and Consequence in Mediaeval Logic*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53); M. Kneale, *The Development of Log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C.D. Novaes, *Formalizing Medieval Logical Theories* (Dordrecht: Springer, 2007).

## I. 왜 오컴은 『논리학대전』을 적는가?

오컴은 스스로 왜 『논리학대전』을 집필했는지 그 이유를 적었다.

“형제 수사이면서 친애하는 친구여, 자네는 최근 편지에서 나로 하여금 논리학의 기술에 대한 규칙들을 하나의 논고에 모아 자네에게 보내도록 설득했다. 그러므로 나는 진보와 진리에 대한 자네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자네의 요청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착수할 것이다.”<sup>3)</sup>

한마디로 논리학을 소개하고 알려달라는 부탁을 수락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일회적인 단순한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라 하기에 『논리학대전』의 논의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방대하다. 즉,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오컴 자신이 『논리학대전』을 집필한 그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다. 단순하게 벗어 부탁한 것으로 집필하진 않았단 말이다. 스스로 『논리학대전』을 작업해야 할 너무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한다.

오컴이 『논리학대전』을 적어가던 시기는 논리학과 존재론을 두고 다양한 주장들을 서로 논쟁하고 있던 때였다. 어느 철학사의 시기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14세기 철학사를 쉽게 정리한 자료를 구하긴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어느 하나의 학파가 주도하지 않은 정말 다양한 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 가운데 그래도 논리학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유명론과 실재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명론이라고 함은

3) 윌리엄 오컴, 『논리학대전』, 윌리엄 오컴이 쓴 서문의 편지. 14.

사실 1277년 이전의 유명론과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시대를 조금 크게 확대해서 13세기 전의 유명론과 13세기 이후 등장한 유명론, 즉 1277년 이전과 이후의 유명론은 그 존재의 이유가 다르다.<sup>4)</sup> 비록 같은 결과를 가진다지만 그 시작과 그 논리의 구조가 당시 사회에 작동하는 방식은 달랐다. 비록 1277년을 바라보는 여러 현대 연구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3세기, 즉 1277년으로 대표되는 그 시기 전후 철학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오컴은 확실한 자신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사상가다. 비록 그 자신의 논리학과 존재론에서 과거 여러 선배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오컴이란 이름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는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 많은 부분에서 그의 논리학과 존재론은 13세기 이전의 과거와 다르다.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존재론적 기반을 가진 실재론자들의 주장과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둔스 스코투스와 버얼리의 주장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스코투스의 철학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수용의 모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매우 비판적이다. 또 동시에 실재론자인 버얼리와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sup>5)</sup> 이들과 가지는 오컴 자신의 입장 차이는 『논리학대전』을 집필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스코투스 및 버얼리와 다르며 다른 유명론과도 다른 자신의 입장을 소개할 충동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은 현실적인 그의 작품으로

---

4) 현대 중세 논리학 연구가 파나초는 오컴과 아벨라르투스 사이의 논의와 차이를 다음의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피터 킹(Peter King)에 대한 파나초의 입장을 읽을 수도 있다. Claude Panaccio, “Mental Language and Predication: Ockham and Abelard”, *Analytica* 14(2010), pp.183-194.

5) Catarina Dutilh Novaes, “The Ockham-Burley Dispute”, in Alessandro Conti(ed.), *A Companion to Walter Burley* (Leiden: Brill, 2013), pp.49-84 그 이외에도 오컴과 버얼리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논문은 특히 범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lessandro Conti, “Ockham and Burley on Categories and Universals: A Comparison”, *Modern Schoolman* 86(2008), pp.181-210과 유대철, 「오컴 철학에 이르는 길」, 『중세철학』 21(2015), 121-152쪽.

이어졌다. 오컴은 그 작품에서 자신의 생각한 스코투스의 한계와 버얼리의 잘못이 상식이 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다. 이러한 불만족도 『논리학대전』을 집필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몇몇 과격한 실재론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180cm이다”라고 할 때, 술어가 되는 180cm는 영혼 외부의 독립된 존재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180cm이라는 수적 존재에 개체인 ‘소크라테스’가 참여하든지 아니면 개체인 ‘소크라테스’ 가운데 그것이 내재하던지 말이다. 다른 경우를 보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명제에서 술어인 ‘인간’을 실재론자들은 영혼 외부의 독립된 어떤 실재라고 해석하곤 한다. 그때 문제가 등장한다. 적어도 오컴에겐 말이다. 그 보편, 즉 그 공통본성은 개체인 소크라테스의 내부에 존재하는가? 내부에 존재하는데 실제적으로 개체와 구분하여 존재한다면, 결국 개체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서로 실제적으로 구분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체의 본질은 개체의 외부에 있단 말인가? 소크라테스의 공통 본성, 즉 그의 실제적 본질은 그의 밖에 존재하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또 개체와 보편이 구분되어 있다면 결국 한 명이라고 언어적으로 표현 하지만, 실상은 개체와 보편으로 된 하나의 ‘덩어리’인가?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이 오컴에겐 실재론을 향하여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는다. 그리고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아 자신의 존재론을 성립한다. ‘인간’이란 보편 술어가 인간 영혼으로부터 독립되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면, 혹은 개체와 떨어져 존재한다면 말이다. 이러한 실재론적 해법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더욱 더 많은 존재론적이고 의미론적인 문제들을 남긴다고 오컴은 믿었다. 즉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고 할 때, 일부 실재론자들은 “소크라테스 내부에 인간이 있다”라는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것은 해설된다고 했다. 주어와 술어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술어가 되는

‘인간’이란 ‘보편’이 개체로 표현되는 ‘소크라테스’의 내부에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오컴에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쓸모없이 많은 것을 가정함으로 존재론적 사유를 비만(肥滿)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라 생각했다. 오컴은 도려낸다. 간단하게 ‘인간’이란 보편 술어를 인간 사유로 만들어진 개념이라 이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영혼 외부에 독립된 존재도 아니고, 개체로부터 분리된 존재도 아니며 그냥 언어적으로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 있진 않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난다. 즉 보편은 논리적 혹은 의미론적 가치를 가질 때, 존재론적 가치를 가지진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재론자들은 술어가 되는 범주들이 영혼 외부에 독립된 존재를 가진다고 보았다. 보편이 독립 존재를 가진단 말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오컴은 자신의 면도날 혹은 청소기로 간단하게 쓸데없는 것을 정리해 버린다. 그리고 개체만 남는다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명제에서 ‘인간’은 그저 개념이다. 독립된 실재가 아니다. 이러한 오컴의 유명론적 이해에 따라 오컴은 논리학적 전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논리학대전』은 바로 그러한 정리라는 오컴, 청소꾼 오컴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오컴에게 1323년은 자신의 정치철학적 입장으로 서서히 어려움이 시작하는 시기다. 1324년 아비뇽으로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가기 바로 직전의 시간들이다. 바로 이 시기 이후 그의 대부분의 저작들은 정치학이나 정치신학과 관련된다. 그 시간 동안 오컴은 교황 요한 22세와 서신으로 치열하게 다툰다. 1323년은 바로 그 직전이다. 그가 만일 이부터 더 늦게 『논리학대전』을 기획하고 집필을 시작했다면, 그 책은 완성되지 못하거나 마음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시도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비뇽 이후 오컴은 사회와 정치철학에 집중해야했었다. 그것이 그의 정치적 현실이었다. 왜냐하면 교황과 다투어야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다. 1323년은 바로 그러한 시기였다. 바로 그 때 오컴은 1323년

『논리학대전』 집필에 착수하였고, 1325년 완성하였다.

오컴이란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시기는 자신의 논리학과 존재론에 대한 고유한 입장을 드러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1321년에서 1323년 그는 다른 논리학 저작들에 대한 주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하여 당시 뜨거운 논리학과 존재론적 사유에 있어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만들어가고 있던 시기였다. 『논리학대전』 집필 착수 바로 직전 대강 그 무렵 그가 고민하며 마무리한 저작들은 『포르피리우스의 범주에 대하여 주해』(*Expositio in librum Porphyrii de Praedicabilibus*),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주해』(*Expositio in librum Praedicamentorum Aristotelis*)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론 주해』(*Expositio in librum in librum Perihermenias Aristotelis*)이다. 명제를 구성하는 ‘명사’(terminus)와 그 명사로 구성된 ‘명제’(propositio)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는 보편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소피스트적 논박에 대한 주해』(*Expositio super libros Elenchorum*)를 통하여 명제에 대한 논의 이후 전개된 나름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으며 논리학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저작인 『예정에 대하여』(*Tractatus de praedestinatione et de prescientia dei respectu futurorum contingentium*)에서 자신의 논리학적 지식을 신학적으로 활용해 보이기도 했다. 또 양(quantitas)의 범주와 관련된 신학적 활용을 시도한 『양에 대한 논고』(*Tractatus de quantitate*)와 『그리스도교의 육체에 대한 논고』(*Tractatus de corpore Christi*)을 마친 상태 혹은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가 오컴이 『논리학대전』을 집필하기 시간한 혹은 집필하던 초기 바로 그때다.<sup>6)</sup>

6) 그 이외에도 오컴의 진본으로 여겨지지 않는 논리학과 범주에 대한 논의로는 『범주에 대한 논고』(*Tractatus de praedicamentis*)와 『관계의 범주에 대한 질문』(*Quaestio de relatione*)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당시는 범주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철학자들 사이에 있었음을



오캄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논리학대전』을 집필한 것이 아니다. 이미 그가 무엇인가 자신의 논리학과 존재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려 소개해야 할 순간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오캄 철학의 초기, 대부분은 신학 저작에 집중한다. 이후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논리학에 집중하는 시기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대체로 정치학 혹은 정치철학 혹은 정치신학을 주제로 한 작품에 집중한다. 각각의 시기에 나온 작품들은 그 시기 오캄이 무엇에 집중했는가를 보여준다. 『논리학대전』은 두 번째 시기의 마지막쯤이다. 당시 실재론과 유명론의 입장과 그 양대 입장에 근거한 다양한 논리학적 혹은 의미론적 입장들 사이에서 오캄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 어쩌면 『논리학대전』은 바로 그러한 개인적 필요의 정점에 있던 시기에 완성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7)</sup>

이런 의미에서 『논리학대전』의 한국어 번역은 오캄 철학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존재론적 혹은 논리학적 입장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낸 작품이 바로 『논리학대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오캄이란 한 개별 철학자의 철학 형성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철학을 한번은 구체적인 어떤 틀 속에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의 작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니 『논리학대전』의 한국어 번역은 오캄 철학 연구의 초석이 될 작업임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

확인할 수 있다.

7) 또 다르게 보면, 『논리학대전』은 그의 정치학적 행보의 존재론적 토대가 녹아들어난 작품이기도 하다. 그의 유명론적 사유 속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의 공의회주의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교황의 ‘교회권력’ 그리고 황제 혹은 국왕의 ‘국가권력’ 그리고 민중의 ‘국민권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 유명론적 초석을 가장 잘 확인하고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논리학대전』이기도 하다. 즉 결과론적으로 그의 정치적 입장은 어쩌면 『논리학대전』을 통하여 마련한 그의 유명론적 사유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겠다.

## II. 『논리학대전』 제1부의 내용

### 1. terminus의 번역과 관련하여

『논리학대전』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문헌인가? 그 가운데 제1부의 위치는 어떠한가? 오컴은 제1부 시작에서 『논리학대전』의 구조를 풀 실마리를 준다.

“논리학에 대한 탐구내용을 다루면서 우선적인 것인 명사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명제에 대한 탐구가 뒤따를 것이고, 마지막으로 삼단논법과 나머지 논증에 대한 탐구가 뒤를 이룰 것이다.”<sup>8)</sup>

오컴은 『논리학대전』 제1부를 ‘명사에 대한 논의로 채우고 있다. 이어서 2부에선 ‘명사’로 구성되는 ‘명제’를 다룬다. 그리고 3부에서는 주로 ‘명제’로 구성되는 ‘논증’을 다룬다. 그리고 그 3부는 다시 여러 부분으로 세분화된다. 한국어 번역의 『논리학대전』 제1부의 부제는 ‘명사에 대하여’이다. 여기에서 ‘명사’라고 번역한 terminus라는 라틴어를 한국어로 고정해 번역하기 쉽지 않다. 오컴이 『논리학대전』 제1부에서 이야기하는 명사는 라틴어 terminus의 번역어다. 흔히 논리학의 대상인 명제의 술어 혹은 주어가 되는 명사(名辭, terminus)는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품사의 한 종류인 명사(名詞, nomen)와 다르다. 그런데 terminus는 한문으로 ‘名辭’이고 nomen은 ‘名詞’이다. 둘 다 ‘명사’라는 동일한 소리를 가진다. 논의의 큰 흐름에서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된다. 『논리학대전』 제1부는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씨’ 혹은 ‘名詞’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논리학의 대상인 명제의 구성요소로 ‘名辭’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terminus와 nomen이라는 서로 다른 두 라틴어를

<sup>8)</sup> 윌리엄 오컴, 『논리학대전』, 윌리엄 오컴이 쓴 서문의 편지. 15.

동일한 소리를 가진 ‘명사’로 번역할 경우, 두 라틴어의 차이가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 수 있다. 이 경우 『논리학대전』 제1부를 읽기는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에 한국어 번역은 terminus는 ‘명사’로 번역하고 nomen은 이와 다른 소리를 가진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nomen mentale를 ‘심적 명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심적 이름’이라 번역한다. 또한 오캄 연구에 큰 화두가 되었던 nomen connotativum도 ‘내포적 명사’가 아닌 ‘내포적 이름’으로 번역한다. 물론 ‘이름’이 아닌 품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름씨’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名詞’에 대하여 ‘이름씨’라 부르고 대명사에 대하여 ‘대이름씨’, 수사는 ‘셈씨’, 조사는 ‘토씨’, 동사는 ‘움직씨’, 형용사는 ‘그림씨’, 관형사는 ‘매김씨’, 부사는 ‘어씨씨’, 감탄사는 ‘느낌씨’와 같은 순수한 한국어 문법 용어들이 있지만, 『논리학대전』의 한국어 번역이 선택한 ‘이름’이란 번역어가 가지는 경제적 편리성을 생각하면 이름이 다른 선택지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 여겨진다. 만일 nomen을 ‘이름씨’라 번역한다면, 부사는 ‘어씨씨’ 등으로 번역해야 할지 모른다. 통일성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도한 통일성 보다 지금의 한국어 번역에 따라서 nomen을 ‘이름’으로 번역하고 terminus를 ‘명사’로 번역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물론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름’은 오캄이 의도하는 nomen를 두고 하려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이름’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하나의 현상과 사물 그리고 단체에 대한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것이 오캄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된다고 볼 수 없을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생각해 보아도 terminus와의 구분 등을 따지면 ‘이름’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어 보인다. 『논리학대전』 제1부는 바로 이 ‘명사’, 즉 명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명사에 대한 오캄의 논의다. 이렇게 보자면, 『논리학대전』 제1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 다루는 것과 유사하다. 『범주론』도 명제를 구성하는 명사를 다루기 때문이다.

## 2. 『논리학대전』 제1부의 구성

1부의 구조를 보자. 1장에서 17장은 ‘명사’를 정의하고 분류한다. 우선 명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의한다(1-2장). 이어서 ‘복합명사’(terminus complexum)와 ‘비복합명사’(terminus incomplectum)를 구분하고(3장), ‘비복합명사’를 다시 ‘단의어명사’(categorematum)와 ‘공의어명사’(syncategorematum)로 구분한다(4장). 그리고 ‘단의어명사’를 ‘구체적 이름’(nomen concretum) 혹은 ‘구체적 명사’(terminus concretum)와 ‘추상적 이름’(nomen abstractivum) 혹은 ‘추상적 명사’(terminus abstractivum)으로 구분한다(5-6장). 또 ‘절대적 이름’(nomen absolutum) 혹은 ‘절대적 명사’(terminus absolutum)와 ‘내포적 이름’(nomen connotativum) 혹은 ‘내포적 명사’(terminus connotativum)로 명사를 구분하여(10장) 다룬다. 또 제1지향(prima intentio)과 제2지향(secunda intentio)에 대한 논의(12장)와 다의적(aequivocum), 일의적(univocum), 파생적 이름(denominativum)(13장) 그리고 보편에 대한 논의(14-16장)도 선보인다. 보편이란 것도 사실은 여럿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술어다. 그리고 그 술어는 명제를 구성하는 명사의 하나이다. 그렇기에 보편에 대한 논의가 명사에 대한 논의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오감은 명사를 정의하고 그 명사의 다양한 쓰임에 따라서 여러 하위의 명사들로 분류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당시 논쟁이 되는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내포적 명사’와 ‘절대적 명사’에 대한 논의다.<sup>9)</sup> ‘절대적 명사의 하나인 ‘인간은 여러 인간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서술된다.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서술된다. 누군가는 어떤 의미로 의미하고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의미하지 않는다. ‘이황’도 ‘칸트’도 ‘유대철’도 모두 인간이다.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서술하고 의미한다. 이러한 것을

9) 윌리엄 오감, 『논리학대전』 제1부 제10장 63-67.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차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차적으로 그것으로 의미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서술 될 수 있다. 그러나 ‘내포적 명사’는 이러한 ‘절대적 명사’와 사정이 다르다. 내포적 명사의 하나인 ‘부모’를 보자. 일차적으로 부모가 되는 당사자를 의미하지만 이차적으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 없이 부모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고 자식을 가지는 당사자 없이 부모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흰 (것)(album)’은 흰 색의 어떤 사물을 생각하게 하지만 동시에 ‘흰’이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나게 한다. 즉 ‘부모’와 ‘하얀 (것)’ 일차적인 의미와 이차적인 의미를 가진다. ‘인간’이란 절대적 명사는 실재에 대한 정의를 가진다. ‘이성적 동물’과 같이 말이다. 그러나 내포명사인 ‘흰 (것)’은 실재에 대한 정의를 가지지 않고, 명칭에 대한 정의를 가질 뿐이다. ‘흰을 가진 것’ 혹은 ‘흰 형상을 가진 것’이란 표현으로 정의될 뿐이다. 이러한 절대적 이름과 내포적 이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사실 당시 유명론과 실재론의 서로 다른 해석으로 다투던 부분이었다.

많은 실재론자들은 ‘단의어명사’는 ‘절대적 명사’라고 보았다. 왜일까? 절대적 명사는 앞서 보았듯이 실재적 정의를 가진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세계의 대상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절대적 명사는 의미대상의 존재를 요구한다. 실재에 대한 정의를 가지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재론자들은 단의어명사들이 모두 의미대상의 존재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극단적 실재론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가 모두 영혼 바깥에 의미대상을 가지며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모든 범주의 명사들이 그 명사의 의미 대상을 실재 가운데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니 모두 실재에 대한 정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버얼리는 범주를 그저 언어의 차원이 아니라, 실재에 대한 것이라 했다.<sup>10)</sup> 이것이 그가 오컴과 너무나 선명하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 오컴은 범주가 실재가 아닌 언어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뿐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실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개별 실체와 개별 성질뿐이라 보았다. 그렇다면 오컴에게는 영혼 외부에 의미대상을 가지지 않지만 개념의 형태로 영혼 안에서 의미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 혹은 언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포적 이름이다. 이를 통하여 오컴은 의미대상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명사의 가능성을 보이려 했다. 내포적 명사를 통하여 실재의 정의가 없는 명칭의 정의만으로 존재하는 명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려 했다. 오컴에게 열 가지 ‘범주’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영혼 외부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존재하는 언어에 대한 것이다.

또 이 부분은 번역의 어려움을 담고 있는 곳이다. 라틴어로 쓰인 중세 논리학을 번역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논의에서 등장한다. 라틴어 *album*을 하나의 단어로 형용사라는 하나의 품사를 가진 하나의 단순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한국어 번역의 역자들이 수용하듯이 ‘흰 (것)’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뿐이다.<sup>11)</sup> 만일 ‘흰’으로만 번역한다면, 이것 자체가 이미 관형어적 표현이 될 뿐이다. 그러나 라틴어엔 관형사라는 품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라틴어로 쓰인 중세 논리학 책을 번역함에 있어 서로 다른 품사 체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하다. 물론 이후 등장하는 지칭론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sup>10)</sup> cf. Walter Burley, *Tractatus super Praedicamenta Aristotelis*, A.D. Conti (ed.), pp.36-37.

<sup>11)</sup> 윌리엄 오컴, 『논리학대전』 제1부 제10장 65. 각주 4번을 보기 바란다.

### Ⅲ. 중세 논리학의 흐름과 『논리학대전』 제1부의 구성

#### 1. 범주와 명사에 대한 유명론과 실재론이 다투는 공간

위의 논의에서 오캄은 명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자신의 이해와 견해를 드러냈다. 이제 그 명사를 명제와 관련하여 세밀하게 다루기 시작한다. 이는 더욱 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포르피리우스의 『이사고게』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짐을 의미한다. 결국 ‘보편’은 ‘술어’ 명사다. 그렇다면 더욱 더 선명하게 보편에 대한 오캄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부터 근대 스콜라 철학에 이르는 명사의 속성을 두고 일어난 화두인 지칭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중세 보편논쟁을 접한 이라면 이 보편논쟁과 포르피리우스의 『이사고게』에 대한 관계를 알 것이다. 『이사고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대한 책으로 오랜 시간 『범주론』의 예비 과정으로 읽혀졌다. 그 시대, 논리학 교육의 과정이 『논리학대전』 1부에서 반복된다. 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이후 오캄은 바로 『이사고게』와 관련된 논의를 18장에서 25장에 걸쳐 다룬다. 『이사고게』에 등장하는 보편과 관련된 고전적인 논의 대상인 다섯 가지 술어에 대하여 다룬다. 다섯 가지는 ‘유’(類)(20장), ‘종’(種)(21장), ‘차이성’(23장), ‘고유성’(24장), ‘우유’(25장)이다. 자연스럽게 이후 논의는 『범주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논리학대전』 제1부는 26장에서 62장에 이르기까지 제법 많은 부분을 두고 범주에 대한 논의로 채운다. 즉, 『범주론』에 대한 자신의 세밀화를 그린다. 그 시작은 ‘정의’와 ‘기술’에 대한 것이다(26-29장). 이어서 주어(주사)와 술어(빈사)에 대하여 다룬다(30-32장). 이후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론』에 대한 10개의 범주를 각각 다룬다. 실체(42-43장), 양(44-49장), 관계(50-54장), 성질(55-56장), 능동(57장), 수동(58장), 언제(59장), 어디(60장), 자세(61장), 소유(62장)에

이어져 다루어진다. 이 부분은 오캄이 당시 자신과 존재론적 입장이 다른 실재론자와 범주에 대한 이해에서 어떻게 자신이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캄의 면도날은 범주의 개수를 줄임으로도 이어졌다. 그는 10개의 범주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보편 범주는 아예 처음부터 모두 잘라버리고 ‘개별 실체’와 ‘개별 성질’만 인정했다. 그것만이 영혼 밖에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것은 모두 영혼 내부 개념으로 있을 뿐이라 했다. 이러한 그의 유명론적 입장을 통해 볼 때, 여럿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서술되는 술어는 영혼 외부에 의미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 알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개체에 대한 술어에서도 10개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별 실체’와 ‘개별 성질’만을 인정한다. 이러한 고민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의 학문함의 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이러한 범주에 대한 오캄의 입장은 오랜 그리고 당시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다.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니다.

오캄이 『논리학대전』의 바로 이곳에서 다루는 문제는 1321년에서 1324년까지 진행된 포르피리우스의 『이사고계』에 대한 오캄 자신의 결과물인 『포르피리우스의 범주에 대하여 주해』와 관련되며, 같은 시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대한 자신의 결과물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주해』와도 관련된다. 또 이 시기의 이러한 작업들은 다분히 자신의 철학적 라이벌인 버얼리를 의식한 것이다.<sup>12)</sup> 버얼리는 오캄의 작업보다 더 앞서 약 1310년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대한 논고』(*Tractatus super Praedicamenta*

---

<sup>12)</sup> Catarina Dutilh Novaes, “The Ockham-Burley Dispute” in Alessandro Conti(ed.), *A Companion to Walter Burley* (Leiden: Brill, 2013), pp.49-84 그 이외에도 오캄과 버얼리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논문은 특히 범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lessandro Conti, “Ockham and Burley on Categories and Universals: A Comparison”, *Modern Schoolman* 86(2008), pp.181-210.



*Aristotelis*)에서 오캄의 유명론과 확실히 구분되는 실재론적 입장에서 범주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버얼리의 입장을 두고 오캄은 버얼리라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대한 해제』에서 동시대의 누군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단어’에 대한(*de vocibus*)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실재’에 대한(*de re*) 논의로 착각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을 오캄은 자신의 시대적 과업으로 알고 있었다. 『논리학대전』을 집필하기 바로 직전 혹은 거의 같은 시기 오캄의 다른 저작에서 보이는 이러한 실재론에 대한 입장을 보면, 『논리학대전』에서 오캄의 생각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오캄은 실재론자들의 명사에 대한 입장을 바로잡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이 클이 되었고 그 글 가운데 하나가 『논리학대전』이다. 그 가운데 이러한 시대적 과업의 가장 직접적인 결실이 바로 『논리학대전』 제1부다.

오캄의 이러한 버얼리에 대한 반론은 버얼리의 반응으로 이어졌다. 버얼리는 오캄의 반론에 대하여 자신의 실재론적 입장을 어느 정도 수정하여 『논리학 기술의 순수성』(*De Puritate Artis Logicae*)의 두 형태인 『소논고』(*Tractatus brevior*)와 『대논고』(*Tractatus longior*)를 집필하였다. 전자의 집필연대는 1324년 그리고 후자의 집필연대는 1325년에서 1328년 사이다. 이 저작에서 버얼리는 그의 초기 입장과 달라진 새로운 자신의 입장을 보인다. 이것만 보면, 1324년 집필된 『논리학대전』의 바로 이 부분, 명사와 범주에 대한 이 부분은 후기 중세 범주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보편 논쟁의 두 진영 유명론과 실재론의 명사 이해와 관련하여, 즉 존재론과 의미론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논박의 역사에서 매우 주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후기 중세 철학의 고전적 자리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이후 버얼리 등으로 이어질 한국어 번역과 연구의 토대를 만든 일이라 할 수 있겠다.

## 2. 중세 논리학의 화두, 지칭론의 자리

범주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이어서 63장에서 77장에 이르는 긴 공간에 오캄은 지칭론을 전개한다. 당시 지칭론은 이를 고민한 철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다. 지칭론은 문맥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significatio)와 달리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사’의 의미론적 기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간’은 문맥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도 유의미한 단어다. 즉 명제나 문장의 주어나 술어가 아닌 독립된 단어로 유의미한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의미론적 기능은 명제 속에선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은 달린다”라는 명제에서 ‘인간’이란 명사는 하나의 개별적 인간을 지칭한다. 이를 오캄은 ‘위격적 지칭’(suppositio personalis)이라 한다.<sup>13)</sup> 이어서 “인간은 두 글자이다”에서 ‘인간’은 발화된 표현이나 문자로 쓰인 표현을 지칭한다. 이를 ‘질료 지칭’(suppositio materialis)이라 한다.<sup>14)</sup> 마지막으로 “인간은 보편자다”에서 ‘인간’은 개별적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 인간이 보편자가 될 순 없다. 그렇다고 발화된 표현이나 문자로 쓰인 표현을 지칭하지도 않는다. 오캄은 이러한 경우 ‘인간’이 지칭하는 것은 개념이라 한다. 그리고 이를 ‘단순지칭’(simplex suppositio)이라 한다.<sup>15)</sup> 『논리학대전』 제1부의 다른 지칭에 비하여 그렇게 길고 깊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유명론과 실재론이 서로에 대한 논쟁을 이어간 부분은 바로 ‘단순지칭’이다. 실재론자들은 단순지칭이 개념을 지칭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 내부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 외부의 공통본성과 같은 보편적 실재를 지칭한다.

셔우드(Guillaume de Sherwood)와 같은 이는 지칭을 ‘질료 지칭’과

13) 윌리엄 오캄, 『논리학대전』 제1부 제69장 315-318.

14) 윌리엄 오캄, 『논리학대전』 제1부 제67장 309-311..

15) 윌리엄 오캄, 『논리학대전』 제1부 제68장 312.

‘형상 지칭’(formalis suppositio)으로 지칭을 구분한다. 형상 지칭을 다시 ‘단순 지칭’과 ‘위격 지칭’으로 구분한다. 버얼리 역시 ‘형상 지칭’을 ‘단순 지칭’과 ‘위격 지칭’으로 나누었다. 형상 지칭은 명제 가운데 명사가 자신의 의미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히 영혼 가운데 개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질료 지칭과 같은 질료적 조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유의미성 가운데 나름의 의미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칭이 형상 지칭이다.<sup>16)</sup> 셔우드와 버얼리는 모두 형상 지칭을 인정하고, 그 형상 지칭의 하위에 의미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격 지칭과 단순 지칭으로 두었다. 오캄은 위격 지칭만이 영혼 외부의 개별적 대상을 지칭한다 했다. 단순 지칭은 개념을 지칭하며 존재론적으로 의미한 지칭이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셔우드와 버얼리가 생각한 단순지칭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셔우드는 실재론의 전통 속에서 논리학을 가르친 사람이다. 버얼리는 실재론자다. 이들이 서로 같은 지칭론을 가질 수 없음을 당연하다. 오캄은 ‘형상 지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논리학대전』 가운데 그와 관련된 독립된 자리를 두지 않는다. 형상 지칭과 질료 지칭으로 지칭을 나누지 않고, 바로 위격지칭, 질료지칭 그리고 단순지칭으로 나누었다. 형상지칭의 자리를 두지 않았다. 그것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순지칭에 대한 오캄의 입장은 단호하다.

“단순하게 지칭하는 심적 명사는 때로는 그 자신을 단순하게 지칭한다.  
‘인간은 종이다’와 ‘동물은 유다’가 그 예다.”<sup>17)</sup>

<sup>16)</sup> Laurent Cesalli, “Meaning and Truth” in Alessandro Conti(ed.), *A Companion to Walter Burley: Late Medieval Logician and Metaphysician* (Brill: Leiden, 2013), pp.87-134, 107; Christophe Grellard, *Croire et savoir: les principes de la connaissance selon Nicolas d’Autrécourt* (Paris: Vrin, 2005), p.171; Julie Brumberg-Chaumont, “The Role of Discrete Terms in the Theory of the Properties of Terms”, *Medieval Supposition Theory Revisited* (Leiden: Brill, 2013), pp.169-204; p.188.

<sup>17)</sup> 윌리엄 오캄, 『논리학대전』 제1부 제68장 312.

오캄에게 단순지칭은 개념을 향한 것이다. “인간은 종이다”에서 ‘인간’과 ‘종’ 그리고 그 명제가 어떻게 참된 명제가 되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에서 오캄은 셔우드 그리고 버얼리와 다르다. 이 차이는 이들이 가지는 존재론적 입장의 차이이다.

후기 중세 철학의 많은 철학자들이 지칭론을 다루었다. 각자의 고유한 지칭론 가운데 각자가 가진 서로 다른 언어와 존재에 대한 이해를 자기만의 논리 가운데 조화시키려 하였다.<sup>18)</sup> 각자 조화된 입장들은 각자의 보편에 대한 입장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캄 지칭론의 번역은 단순한 한 개인의 입장에 대한 번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후 셔우드와 버얼리와 같은 이들의 번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혹은 다른 이들과 오캄의 논쟁을 다루며 당시 다양한 지칭론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 IV. 『논리학대전』 제1부를 읽고 나서

조금 더 풍부한 각주를 통하여 조금 더 풍부한 시대적 논쟁과 조금 더 풍부한 현대 연구가의 논의를 소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나 라틴어로 쓰인 논리학, 그것도 존재론적 사유와 의미론적 사유가 혼재된 문헌을 서로 다른 품사 체계를 가진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안다. 라틴어 *album*을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통일성을 가지고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하였을지 알고 있다. 그리고 *suppositio*와 같은

---

<sup>18)</sup> E.P. Bos, *Marsilius of Inghen: Treatises on the Properties of Term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2); Paul of Venice, *Logica Magna*, Alan R. Perreiah(trans.)(St. Bonaventure, NY: Franciscan Institute, 1971).

전문용어를 ‘지창’과 같이 고정된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또한 이 책으로 처음 중세 논리학을 접한 한국의 독자를 위하여 해제를 적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 한국어 번역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다. 13세기에서 14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철학적 혼란 가운데 오컴이 취한 입장을 알고 그 시대의 논쟁을 알고 오컴 자체의 철학적 삶의 여정에서 가지는 이 책의 위상을 안다. 그래서 이 책의 번역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 번역 이후, 이 번역을 토대로 이루어질 오컴 연구와 후기 중세 논리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번역을 기대하게 만든다. 당장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본인도 이 한국어 번역의 역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 이제 한글과 관련해 고민하는 것을 덜고 조금 더 깊이 중세 논리학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번역은 그 자체로 충분히 기쁘고 고마운 일이다.